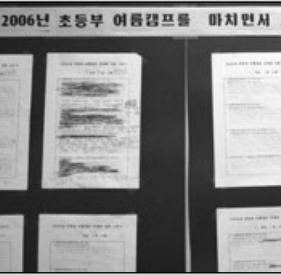


교회생활 이모저모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교회에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물놀이와 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초등부 간증문 전시

1층 동쪽 복도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간증문이 전시되어 있다. 초등부는 지난 7월 24-26일까지 양평관광농원에서 성경학교를 가졌으며 프로그램 중에 모든 어린이들이 간증문을 작성했다.



고등부 수련회

고등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호텔오대산수련원에서 브릿지임팩트 청소년사역원이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여하였다.



청년부 국내농촌봉사활동

지난 8월 1일 강원도 평창지역으로 국내농촌 봉사활동을 떠난 청년부가 사역을 마치고 5일 교회에 도착했다.



교회 청소작업 완료

대예배실과 각종 부속실 그리고 복도 등 교회 곳곳의 청소 및 왁스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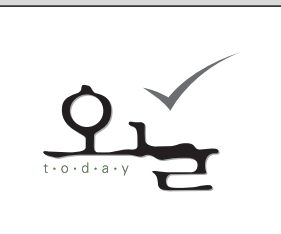
다음 주일 국수봉사 재개

주방 소독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수봉사가 다음 주일(8월 1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여름방학 휴무/휴관 안내

여름방학을 맞아 설만한 물가는 8월 21일까지, 도서관은 9월 1일까지 휴무와 휴관 한다. 도서관은 토요일과 주일에 정상 운영한다.



전도예배

전도예배 '오늘'은 8월 20일(주일)까지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드린 후,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5일(주일) 오후 6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기사정정 : 182호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사 중 헤즈볼라와 관련 무장 세력단체라는 표현을 레바논 남부 자치정부로 수정한다.

Misson **함즐함울**,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맛 돋구는 데는 ~가 최고야!”라고 말할 때 쓰는 ‘돌구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돌구다’는 안경도수를 높인다는 의미 말고는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로 도드라지게 올리다/위로 높아지게 하다/어떤 정도를 더 높이다/기분·느낌·의욕 따위를 부추기거나 일으키다/심리작용이 세차게 일도록 자극하다> 뜻으로 쓸 때는 ‘돌구다’가 아니라 ‘돌우다’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한창 인데, 입맛 돋우는 음식 드시고 즐거운 여름철 보내세요...

방과후학교 여름방학특별활동

“캐릭터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지난 토요일(7월 29일), 방과후 학교는 여름특별활동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남산 N서울타워 안에 있는 캐릭터 박물관을 다녀왔다. 오후에는 수업이 진행되므로 오전의 시간을 이용해 관람했다. 이날은 미술반을 중심으로 11명의 청소년들과 3명의 교사가 참석했

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캐릭터 뮤지엄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미키와 도널드, 바비, 테디베어등의 캐릭터들이 연대별로 전시되고, 각 중 새로운 캐릭터들과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장난감과 퍼즐 등을 직접 만져보고 사진을 찍어보기도 했다. 다음 주 방과후학교의 여름특별활동은 영화 관람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011-9285-4096(박철호 교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매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방과후 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이면 누구에게 열려 있다.

(1면에 이어서)

4부예배신설, 봉사자를 찾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새로운 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

기존 교회의 사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기존 안내부, 주차부, 예배부와의 연계를 위하여 안내

부장, 주차부장, 예배부장 등 각부서의 부장은 기존의 부장이 맡고, 기존 부장이 4부까지 감당하기 힘든 경우, 4부담당 팀장을 부장의 제량으로 세울 수 있다. 찬양대 및 교회학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시작하기로 하며 준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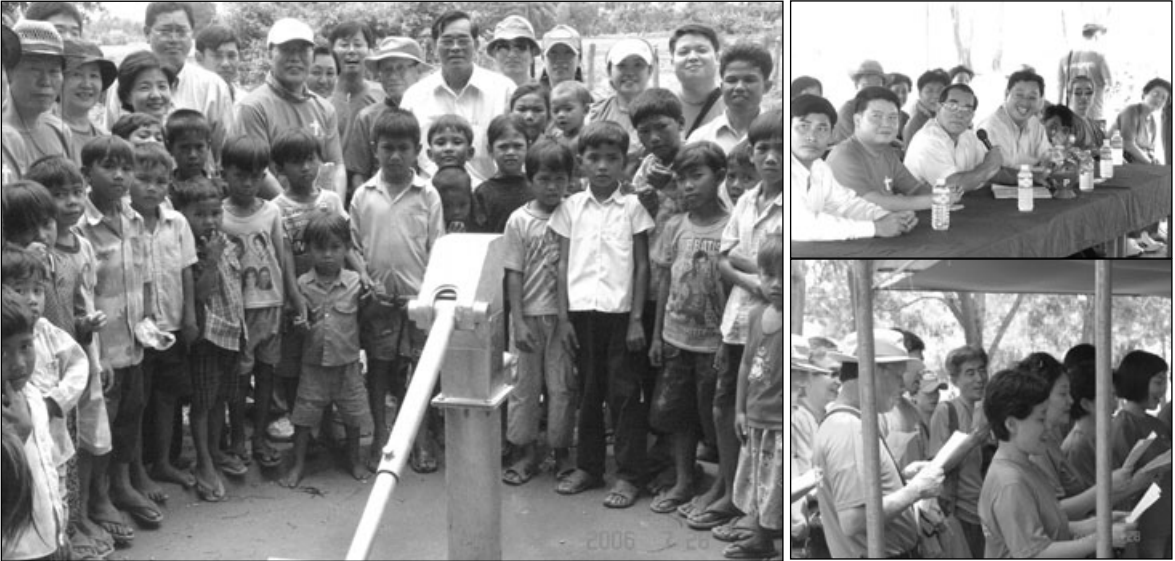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83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8월 6일

캄보디아 우물파기팀
사랑과 기도 담긴 천사의 우물 1~5호 건설



7월 26일 수요일 14명의 우물파기팀은 오전 10시 40분 비행기로 단기지역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하였다. 베트남 호치민 탄손나트공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 도착했을 때 캄보디아 현지시간으로 저녁 6시경(한국 8시),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바라본 하늘에서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이성민 선교사를 만나 공항을 나오기 전 함께 기도하고 이동하면서 가로등이 없이 캄캄한 거리와 허름한 가게들을 지났다.

이성민선교사와 사모 김창숙 선교사는 주님의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 10년째를 맞고 있다. 교회개혁과 성경 번역, 주일학교, 교회 목회자훈련 등의 사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주님의교회는 캄보디아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 5천달러를 지원하여 이성민선교사가 5개의 우물을 지정하고 일을 맡아 미리 진행해 오고 있었다.

우물파기팀으로 출발한 선교단원은 이창현 목사, 장일형집사(우물파기팀장), 한구영 집사(총무), 하승락 집사, 정영숙 권사, 이영희 집사, 허종구집사, 이은주집사, 현경태(회계), 유년부의 진승미, 최윤정 교사

와 권계화 집사와 자녀 성경식, 성소라, 양병택 집사 그리고 신지민 기자(함즐함울)가 참가하여 총 16명이었으며 2명의 교사는 27일 유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캄보디아로 합류했다. (2면에서 계속)

4부예배신설,
봉사자를 찾습니다

2~3부 예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1~3부 예배와 동일한 4부예배가 신설된다. 8월 27일(주일)부터 오후 1:30~2:30,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되며, 기존 전도예배 '오늘'은 8월 20일(주일)까지 현재와 같이 오후 2시에 드린 후,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5일(주일), 오후 6시로 시간을 옮겨 다시 시작한다. 목양사역본부에서는 4부예배를 위하여 봉사할 교우를 찾고 있다. 이들은 안내부, 주차안내부, 예배부, 찬양대 및 교회학교(통합아동부 형식) 등으로 봉사하게 된다. (4면에서 계속)

지난 주일, 엘리베이터 고장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7월 29일(토) 엘리베이터의 작동상의 문제

가 생겨 관리업체에 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관리업체의 파업으로 주말까지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일, 불편을 겪은 장애인과 여러 가지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했어야 했던 성도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

예배의 현장 “오늘”

	2면
교구수련회 / 성경학교	3면

▶ 단기선교 참여팀

팀구분	일 정	사역지역
선교이야기팀	8. 7 - 8. 13	시아누크빌
청년1팀	8. 9 - 8. 13	캄보디아 서북부, 베트남
청년2팀	8. 9 - 8. 18	시엠리엠프, 시스폰
청년몽골팀	8. 11 - 8. 19	울란바토르
청년중국팀	8. 14 - 8. 19	심양, 연길
중고등부	8. 14 - 8. 17	시엠리엠프, 시스폰
의료선교팀	8. 14 - 8. 20	다케오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_ 오늘 연주팀
“연극” _ 최명숙
“뱀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막 10:43~45)” _ 이호 목사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_ 최성은, 이종익

즐거운 교회생활 캠페인

집회실과 수련실,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교회 모든 부속실은 성도들은 물론 정신 여중고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사용하는 한 분 한 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끼며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교회와 학교의 더 좋은 나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 주세요.

- 1. 사용 전 사무실에 예약하기
- 2. 사용 후 엠프, 전등, 에어컨 전원 확인
- 3. 청소 및 정리정돈(국수 식사는 식당에서만)

함즐함울 휴관공고

함즐함울은 여름휴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월 13일 (주일) - 27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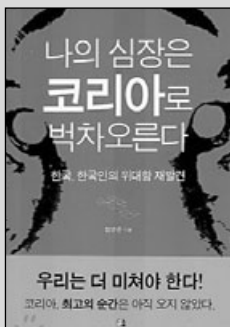
예배의 현장 : 4부예배 “오늘”

“내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알아”



지난주 4부 예배 오늘은 박라나씨와 성필관씨의 하프와 오보에 연주가 있었다. 오늘 연주팀의 연주에 이어 진행된 하프독주 "아라베스크"는 쉽게 접해 보지 못하는 하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다. 문화가 없는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술가는 온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박라나씨는 성필관씨와 함께 구약시대 부터 인간의 심령을 고친 현악기 하프와 음색이 너무 좋다는 이유로 교회음악에 연주가 즐기시 되었던 오보에 합주로 하나님의 순교자를 위한 영화 "미션"의 주제곡과 "주만 사랑합니다"를 연주했다.

이어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 오른다"의 저자 함영준 집사(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강의로 한국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리더쉽과 자부심만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으며 한국은 왜 자랑스런 나라인가를 설명하였으며 우리가 개방성, 자율성, 규율성, 긍정과 나눔, 창의성을 더 개발하여 더 훌륭한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전했다. 이어 이 호 목사는 신명기 (7:6-8)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선택의 여러 방법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란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알아 모든 것을 되새기며 의와 기쁨 되신 주를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기도



주여!
천국과 지옥의 자들을 위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자가 되게 하옵소서!

(1면에 이어서)

사랑과 기도 담긴 천사의 우물
(Angels' Well) 1~5호



우수한 파이프로 만들었다.

프놈펫의 CTM에서는 선교팀이 방문한 27일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해 함께 기도를 드렸다. 앙스와 이 마을에서는 우물이 완성되어 우물준공식예배를 드리고 이창현목사가 감창숙선교사의 통역으로 모여든 100여명의 마을주민에게 말씀을 전했다. 군청소재지인 당땡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마을이장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전 학생과 마을사람들이 참석하여 이창현 목사의 말씀과 단기선교팀의 헌치여 찬양을 전할 수 있었다.

우물과기팀의 일정대로 방문한 우물은 프놈펫의 Center for Cambodia Transformation Movement(Angels' Well 1), 앙스와이 마을(Angels' Well 5), Dang Tung 중 · 고등학교(Angels' Well 2), 쪼끼리교회(Angels' Well 4), 뜨람콕 교회(Angels' Well 3)로 '천사의 우물(Angels' Well)'이라고 공식 이름을 짓고 기념판을 붙였다.

한 개의 우물을 파는 데는 820달러의 비용이 들며 프놈펫은 워낙 물을 많이 이용한 상태라 깊이 파서 1,500달러가 들었다. 모두 우물의 깊이는 70, 80m이상으로 제철면에서 가장

쪼끼리에서도 우물기공식으로 함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우물 마지막 방문지인 뜨람콕교회 근처 우물에서는 펌프를 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30컵 셀연합모임

예배와 셀모임으로 자리 잡아



매주일 오후 1시 15분 1층 제3집회실에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작고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 동그렇게 둘러앉은 30여명의 20대 후반부터 40대에 이르는 미/기혼 남녀들이 모여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 찬양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을 드리고 30컵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령 목사의 요한복음 사건들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듣는다. 설교 후에는 그들에게 다쳐진 현안뿐 아니라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예배 후에는 셀로 흩어져 소그룹 모임일 하고 있다. 교제로는 7월부터 IVP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 일주일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셀모임은 주중에 모이는 여성구역(송화/강동, 분당/용인)도 있다.

8월 20일에 [아골짜기로 희망의 문을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30컵예배를 드리게 된다. 30컵 예배는 매일 3째 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드러지며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림으로 배우는 생활수화



만나다(meet)

양손 2를 나란히 세워 맞댄다.

고등부 월례회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위한 기도



성균 교사 운영하는 신천역의 한 안경점에서 가졌다.

홍민기 목사, 유성훈, 이세진 전도사 및 고등부 교사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대한 간단한 업무 보고에 이어 보다 알차고 참신한 하반기 사역의 향상을 위하여 집중 논의하고 고등부 학생자치회 구성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오는 여름 수련회와 캄보

디아 비전트립을 통하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진정한 사회의 리더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도하였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성균 집사가 눈의 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생활태도 및 시력교정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눔의 교제를 가졌다.

2006 교/구/수/련/회

5교구

“성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넘치도록”



5교구 수련회가 지난 7월 21일부터 1박 2일로 경기도 광주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1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부부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주제로한 강의를 듣고 나서 부부 각자의 장정 20가지 이상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많은 부부가 상대의 장점을 두세 가지 밖에 쓰지 못하고 애를 쓰는 것 같았으나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 상대의 단점을 바라보며 단점이 바로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서

고 가정이 바로서야 그 사회가 바로 선다는 진리를 금년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깨우쳤다.

또한 김 경신 장로의 꼭지 점댄스와 체조 교습 시간은 모든 교구 식구들 남녀노소가 흥겨운 댄스파티로 수련회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였으며, 부부는 물론 온 성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넘치게 하였다.

이쉬움 속에 헤어지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진 사랑의 회복은 물론 주님의 참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교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도했다.

7교구

“은혜, 은혜입니다”



7월 16-17일, 1박 2일간 진행된 7교구 수련회는 4부 전도예배 “오늘”을 참여함으로 시작되었다. 수련회의 여는 예배를 “오늘”을 드리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예배 후 쏟아지는 빗줄기를 가르며, 교구수련회 장소인 충북 괴산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고사리수련관으로 떠났다.

그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교구 식구들의 삶의 이야기시간이 감동의 긴 여운을 남겼다.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믿지 않은 상황에서 장년이 되어 주님을 만난 지 10년이 된 성순현 집사와 암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난 김기창성도, 남

편의 실직과 육신의 절고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깊은 용당이와 수련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 살아가는 일은 영성도,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롭게 섬길 기회를 얻은 권오승 장로의 간증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함과 위로와, 사랑과, 비전의 도전 주었다.

또한 전문강사인 장지선집사의 인도로 진행된 요가로 몸운동을 함께 했고 임상심리전문가인 심리학박사 김명식 집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연풍 순교 성지를 방문하였다. 이곳에는 황석두 성인과 함께 충남 보령 갈매곶에서 순교한 다블뤼 주교, 위앵 신부, 오메트르 신부 등 5인의 성인상과 함께 순교 현양비가 건립돼 있었다. 또 최초의 한국인 주교인 노기남 대주교의 동상과 국내 최대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어 역사의 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안성 보개면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있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원수가 많은 97명의 아이들과 16명의 교사들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유년부

의 이진화전도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첫날 밤에 있었던 아이들과의 숨바꼭질과 2인 3각 경기, 순가락으로 탁구공 나르기 등의 게임시간에는 서로가 하나되는 공동체를 배우고, 존귀한 주의 자녀답게 사는 아이들이 서로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몇 주 동안 모든 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센터학습’은 아이들이 공으로 자기의 나쁜 버릇을 쓰러뜨리고, 가족장화를 신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방패와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왕의 자녀로 거듭남을 체험해 해주는 시간이었다.

그 밖에 장기자랑시간에 선보인 찬양에 맞춘 꼭지점 댄스와 캠프파이어에 등장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세 요정, 그리고 타오르는 불에 나쁜 습관들을 태워버리고 결단하는 아이들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기도 등 귀한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다.

유년부의 한 교사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준비와 수고에 감사하며 특히 수련회에 직접 참가하여 아이들을 돌보아 준 한 학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날씨와 모든 필요에 맞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다.

